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 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전통과 현재의 만남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의 초대,
1913송정역시장으로 놀러오세요!**



정기휴무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자율 휴무 - 매월 넷째주 월요일

어머의 마음을 만나다
광주 알반우 시장
문익시장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세요!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대하여 정(情)까지!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 |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 인정명치는 시장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365일 동화같은 즐거움!
봉선동화시장으로 오세요!



흥이 나고 부자되는 상인, 놀이가 있는 부담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봉선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별고,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와 팔던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